

- 주요 뉴스: 중국 성장률 둔화될 전망, 당국은 경기부양책 강화에 나설 가능성
 -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필요 시 3월 금리인상 단행
 - ECB 총재,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,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 예상. 탄소 배출 증가 초래할 소지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상승[+2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기술주 매도 증가
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.1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예상에 부합하는 파월 의장 발언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5%, 1.2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전망 등이 반영
 독일은 인플레이션 관련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면서 보합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2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/14일	1/7일	전주말대비			1/14일	1/7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662.9	4,677.0	-0.30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8%	1.76%	2bp
	유럽	481.16	486.25	-1.05%		독일	-0.05%	-0.04%	-0bp
	중국	3,521.3	3,579.5	-1.63%	CDS 5y	한국	21bp	24bp	-3bp
	일본	28,124	28,479	-1.24%		중국	48bp	43bp	5bp
	한국	2,921.9	2,954.9	-1.12%	위험 지표	EMBI+	409	396	13bp
환율	달러지수	95.17	95.72	-0.58%		VIX	19.19	18.76	2.29%
	유로화	1.1411	1.1360	0.45%		WTI유	83.82	78.90	6.24%
	엔화	114.19	115.56	1.20%	원자재	구리	442.1	441.0	0.24%
	위안화	6.3527	6.3778	0.40%		금	1,817.9	1,796.6	1.19%
	원화	1,187.3	1,201.5	1.2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중국의 성장률 둔화 전망, 당국은 경기부양책 강화에 나설 가능성

- 1/17일(月) 중국 '21년 4/4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. 시장에서는 3.6%를 기록하여 2020년 2/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. '21년 연간 성장률은 8.0%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나, 이 또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
-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침체, 정부의 부채축소 및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, 수요 둔화 등이 거론. 오미크론 감염 확산, 수출 둔화 등으로 상당 기간 성장률 부진이 예상되며, 로이터에 따르면, 금년 성장률 추정치는 5.2%
-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통화당국의 주요 인사들은 연이어 성장 촉진을 강조. 이에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(LPR), 은행 지급준비율, 중기대출제도(MLF) 금리 등의 인하를 통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에 나설 소지
- 정부도 세제인하, 부동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특별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할 전망. Natixis는 이러한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는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,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필요 시 3월 금리인상 단행

-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실수요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.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
-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는 경제가 1년 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. 특히 이들 기업은 비용증가와 함께 인력 유지가 큰 과제가 되었기에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

■ 미국 '21년 11월 기업재고, 견조한 증가세 유지. 자동차 부문 재고가 큰 폭 증가

- 상무부에 따르면, 같은 달 기업재고는 전월비 1.3% 늘어 예상치(0.3%) 상회하며 10월과 동일한 수준 기록. 자동차 재고가 크게 증가하여(4.2%) 세계적인 공급 차질이 당초 예상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추정

■ ECB 총재,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

- 라가르드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목표치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.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
- 슈나벨 이사는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. 또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져도 해당 조치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

■ 중국 '21년 12월 무역수지, 수출호조로 대규모 흑자 기록. 향후 수출둔화 예상

- 해관총서에 따르면,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는 945억달러로 1994년 이후 최고치. '21년 연간 무역수지 흑자도 6764억달러로 1950년 이후 최대. 이번 결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제조업 활동이 조기에 정상화되어 수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
- 다만 이러한 수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관측. 백신 접종 확대와 먹는 치료제 개발 등으로 여타국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예상되며, 이에 코로나 19에 따른 수출 특수 효과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

■ 국제에너지기구(IEA),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 예상. 탄소 배출 증가 초래할 소지

- 글로벌 전력수요가 향후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전력생산을 위한 천연가스와 석탄 사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.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전기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사회적, 정치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
- 석유 거래기업 Vitol은 유가가 금년에 이미 10% 올랐으나,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. Vitol의 Mike Muller는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14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'21년 12월 주택가격(전월비): -0.8%, 11월(-0.3%), 예상치(-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17 현지시각 기준)

- ECB 슈나벨 위원 강연, 영국 1월 Rightmove 주택가격지수
- 중국 '21년 4/4분기 성장률, '21년 12월 산업생산, 고정자산투자,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경제, 오미크론 확산과 인플레이션 등이 금년 성장을 저해할 전망 - WSJ

(Omicron, Inflation Drive Down U.S. Growth Outlook)

- 최근 WSJ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고물가, 공급병목, 코로나 확산 등으로 금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(3%)를 작년 10월(4.2%) 대비 하향 조정. 또한 금년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.1%로 제시하여 기존의 전망치(2.6%)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
- 급등하는 물가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를 유도할 우려. Grant Thornton의 Diane Swonk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. 공급 병목은 중국의 방역 강화로 금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

■ 중국의 제로-코로나 정책, 장기화 시 제조업과 공급망에 충격이 불가피 - Financial Times

(China's zero-Covid policy poses challenge for manufacturers and supply chains)

-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오미크론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은 베이징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소지. 폭스바겐, 도요타, 폭스콘,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은 이미 부품 조달과 운송 등에서 어려움에 직면
- Seraph의 Ambrose Conroy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봉쇄에 적응력을 보이고 있으나, 올림픽까지의 장기간 폐쇄에는 취약할 것으로 진단. McKinsey의 Didier Chenneveau는 기존의 공급 차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

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, 심각한 정치·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소지 - Financial Times

(The folly of a new Russian war in Ukraine)

■ 미국 연준, 경기 불확실성으로 3월 이후 명확한 정책 경로 제시는 기대난 - 블룸버그

(Fed Will Find It Hard to Talk About Path Ahead After March Hike)

■ 영란은행, 고물가 지속 등을 반영하여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Will UK inflation data prompt another rate increase?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